

민주당 대의원께 드리는글

노무현후원회 대표

이 기 명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현 후원회 대표로 있는 이기명입니다.

먼저 주재님은 저의 행동을 용서하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제가 이런 글을 쓰게 된 것은 이번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입후보한 노무현 후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소망 때문이며 아울러 오랜 기간동안 노무현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의 진솔한 모습을 대의원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것이 노무현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저는 58년을 살아온 인생중 32년을 정치와는 아무 인연이 없는 방송작가로서 살아왔습니다.

다만 한가지 그것도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지난 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저는 후광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로고송인 '인동초'를 작사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성장을 했고 올해 58세입니다. 쥐띠입니다.

글을 쓴다는 것 이외에는 별로 재주가 없으며 방송된 대표적인 작품을 들라면

KBS에서 지금도 방송되고 있는 '김삿갓 방랑기'를 10여년 집필했다는 사실일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언론운동협의회'의 회원이며 '언론지킴이 천주교모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자신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나이를

먹기까지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헤아려 주십사하는 것

입니다. 또한, 노무현 후원회 대표로서도 부끄럽지 않게 처신해 왔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노무현 후보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그가 의원직을 사퇴한 후

긍정과 부정의 여론 사이에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때 저는 노후보와

일면식도 없으면서 그의 의원직 사퇴를 반대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노무현의 의원직 사퇴가 결과적으로 군사독재 정권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가 된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과 같은 정치인은 우리 국민이

보호해야 한다는 확신에서 노무현 자신은 극구사양을 하는데도 후원회 결성을 강행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행위에 대해서 한점 부끄러움도 후회도 없습니다.

제가 살아온 58년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나고 물어면 저는 서슴없이

노무현 후원회를 만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칭찬하면 팔불출이라고 풍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께 편지를 쓰려고 결심을 한 후 가장 고민을 한 것도 그 부분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노무현 후보의 경우 그래도 많은 부분이 국민들과 당원동지들로부터 한번은 검증이 되었기에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저는 작년 총선 때 노후보와 함께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낙선할 것이 뻔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맥 빠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마음만 바꾸면 선거구를 옮길 수도 있었던 노후보는 대의와 원칙과 당위로서 선택한 부산동구에서 출마하여 당당하게 싸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원 봉사자인 수백명의 운동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땀땀했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역시 이겨야 신이 나는 것이었고 낙선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 지구당 창문가에서 운동원들은 소리내어 울었고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노무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운동원들을 달랬습니다. 저는 그때 툭툭없이 노무현도 가슴속으로 통곡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패한 것이 억울해서 운 것이 아니라 망국적인 지역감정이 그를 울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총선에서 정치인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국민들은 그에게 살신성인이란 찬사를 선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분명히 살신성인을 했고 그의 정치적인 소신은 항상 옳은 편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이 보여준 행동 또한 모든 정치인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영삼정권이 탄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유와 민주당과 김대중 후보가 집권해야 할 당위성을 설파하는 노무현의 명쾌한 논리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열화와 같은 갈채를 받는 것도 역시 노무현을 신뢰하는 국민들의 정서가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노무현은 거대한 언론왕국인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노무현은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 라는 주간조선의 기사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법원에 의해 주간조선이 노무현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짐으로서 제도권 언론이 노무현을 얼마나 음해하는지 극명하게 증명했습니다. 또한 노무현이 얼마나 용기와 신념이 있는 정치인인지 명확하게 보여

주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당시 당의 지도부는 노무현에게 고소를 취하하라는 권유를 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부했고 결국 그가 옳았다는 것을 법의 심판으로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노무현이 신념의 인간임을 알게 됩니다. 저는 후원회 대표를 3년여 맡아 오면서 여러가지 감동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솔직히 정치인이 후원회를 결성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정치자금의 해결입니다. 후원회원들의 깨끗한 후원금이 정치인을 검은 돈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러나 야당 정치인의 후원회는 정치자금을 모으는 기능은 거의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당정치인의 비합법적 후원회가 재력있는 몇몇 사람의 후원으로 엄청난 정치자금을 모아 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이권과 교환되는 정치악의 한 표본이 된다면 노무현후원회는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친 가장 이상적인 정치후원회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후원금을 보내지만 회원들의 정성은 가끔 저를 눈물짓게 합니다.

서울 어느 여학교에 재직하시는 선생님 후원회원은 오랜 병상생활을 하시는 데... 그 부인이 만원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제 남편의 쾌유를 위해 저는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후원금을 보내면서 노의원께 남편의 쾌유를 비는 똑같은 정성으로 정치를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감동을 겪으면서 저는 노무현 후보가 진정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정치인이며 결코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치인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오늘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선패배로 인한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활력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고질적 병폐인 계파를 초월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이 민주당에게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정당사에서 또 하나의 신화를 창출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당생활을 하면서 고향인 부산에서 버림받은 사람, 정의의 편에 섰으므로 배신자로 매도되는 사람, 바른 길을 걸기에 고독한 사람이 바로 노무현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제 나이 이제 58세, 노무현 후보는 48세입니다. 저를 아는 친구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32년간 작가 생활을 했고 부족한게 하나도 없는 자네가 그 나이에 왜 야당정치인인 노무현 후원회장을 하느냐구요.

그 때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알고있는 그 많은 정치인들 가운데 노무현처럼 자신의 철학을 가진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또한 치열하게 자기인생을 사는 사람도 알지 못한다구요. 그렇습니다. 저는 10년 아태인 노무현으로부터 인생을 배우며 그래서 무척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노무현 후보가 당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을 할수 있는 기회를 이번 전당대회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말뿐인 민주화가 험란하게 춤추는 칙박한 이땅에서 여러분은 민주화의 선봉으로서 싸워오셨습니다.

노무현도 그 자랑스러운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노무현은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저의 편지가 독선에 치우쳤다 하더라도 노무현에 대한 애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대의원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993년 3월 11일

노무현 후원회
대표 이기명 올림.

노무현 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5 서린빌딩 405호

☎ (02) 784-2245/784-3786 150-010